

요 약

- ▶ 세계적으로 물산업이 21세기의 ‘블루골드’로 부상하고 우리 정부 역시 2009년 이후 물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5년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된 제7차 세계물포럼을 계기로 ‘물산업은 건설산업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루고자 함.
 - 우선, 물산업의 성장성과 우리 기업의 수익 창출 가능성 분석을 통해 건설업의 신성장동력으로서 물산업을 제시하고, 이어서 국내 건설기업이 해외 물시장에 진출하는 전략 방안을 모색함.
- ▶ 물산업의 성장성은 특히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의 경제 성장에 따른 인구 증가와 도시화,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물 자원의 불안정성 증가 등에 의해 확보
 - 댐, 담수화 설비 등 수자원 확보 설비부터 정수 설비, 상·하수도망, 하수처리장, 재이용 설비 등 물산업 전반의 설비 건설에 참여함으로써 물산업 전반에 걸쳐 체계적 시각을 보유할 수 있어, 건설업은 성장세가 확보된 물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간주할 근거를 보유
 - 부품 및 소재를 생산하는 제조부문과 기획 및 설계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링부문의 국제 경쟁력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건설업에 고유한 시공 참여만으로는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운영 사업에도 참여해 장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국내 건설기업들은 국내외에서 풍부한 물산업 설비의 시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공 경험이 집중된 중동과 아시아 지역의 물시장 성장률 예측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 ▶ 진출 대상이 되는 시장의 동향과 전망, 그리고 국내외 기업들이 내부 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진입 방법 사례 조사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의 물산업 진입 SWOT 분석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진입 전략을 도출함.
 - 물산업의 성장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정부의 물산업 육성 드라이브 지속이라는 기회 요인과 함께 선도국들의 물산업 경쟁력 강화 움직임, 그리고 물산업의 민영화 추세에서도 자국 기업을 우선하는 경향이 우세한 것 등의 위협 요인이 공존하고 있음.
 - 국내 기업들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에 많은 시공 경험을 축적해 시장의 이해도 측면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국내 물산업 생태계 미비, 핵심 기술 경쟁력 부족 등의 약점도 가지고 있음.
 - 국내 건설기업들이 사업 경험이 많은 지역의 성장 추세에서 정부의 물산업 육성 정책에 따른 정책 및 금융 지원의 도움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등 국내 건설기업의 강점 요인과 기회 요인을 이용하며 약점 요인을 보완하는 전략 제시